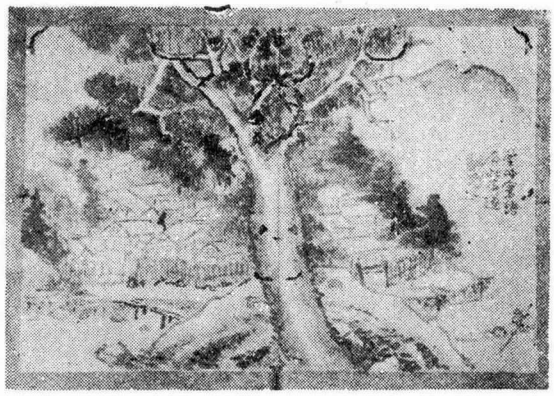


畵 道 景

오이 雅會의 會員이었던 尹勣의 所持品이 그 子孫에게 傳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尹景道의 山水畵 三幅의 一例는 別示한 寫眞으로 알 수 있으나 그 畵題만을 抄出하여 보면、

(1) 李凌壺 每喜作
古松下燒香獨聖
老人 未知與此
何如 景道

(2) 偶尒寫意 未必
有此境 亦未必
無此境

(3) 蔡冲寰譜 有此
本 遂戲學之

이 三片의 山水畵는 文人畵로서 相當히 높이 評價할 수 있는 境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壺型誌石

全 鎣 弼

題하여 『壺形誌石』이라 하였으나 實은 뚜껑까지 完全한 아담한 항아리의 表面에 글字를 새겨서 誌石(墓誌銘)으로 利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地方窯產으로 推測되는 卵白色釉의 圓筒型有蓋壺에다가 뚜껑에는 楷書로 『誌石』이라고 두字를 큼직하게 쓰고 항아리의 몸뚱이 全體에는 亦是 楷書로

『學生沈公之墓 公諱能淵字道彥 靑松人考諱 喆寬妣淸州金氏公 純祖甲申四月二十日生 太上皇辛卯正月二十六日卒墓在洪原好賢社要洞壬坐配金海金氏 子宜鏞宜鑄宜鏇宜鍰宜鑑庚戌九月 日』

이라고 八十字를 또박또박 정성드려 썼는데 뚜껑의 글자나 항아리 몸뚱이의 글자들은 全部 깊이 陰刻된 後 鐵砂로 象嵌이 되어 있다。

陶磁로 된 墓誌는 대개 靑華나 鐵砂나 陰刻 等으로 文字를 記錄한 册形狀의 矩形陶磁板인데 이 壺形誌石같이 뚜껑까지 具備해 있는 항아리를 誌石으로 利用한 것은 보기드문 것으로서 이에 간단히 紹介하는 바이다。

東國大學 黃壽永 敎授도 오래 前에 뚜껑은 없으나 筆筒같은 모양의 文字가 쓰여 있는 항아리를 하나 보았는데 그 內容을 읽어보니 墓誌銘이었다 한다。

그러면 한 때 어느 地方에서 이와 같이 항아리를 利用해서 墓誌로 쓰던 일이 있지나 않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한걸음 더 나가서 이 壺型誌石과 같이 항아리로 된 誌石을 墓 앞에 묻을 때에는 空壺로 묻은 것이 아니라 死者의 冥福을 빌

기 위하여 여러가지 물건을 항아리 속에 넣었을 것으로도 짐작되는 것이다。

이 壺型誌石에 記錄된 死者 沈能淵에 對하여는 詳考할 겨를이 없으나 生前에 아들 五兄弟를 두고 死後에도 雅致있는 誌石을 무덤에 묻을 정도라면 상당히 多福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六十八歲의 壽(純祖二十四年生·高宗二十八年卒)를 누렸고 死後 十九年만인 庚戌(純宗四年)에 이 壺型誌石이 燒成된 것이다。

항아리의 全體高 二一·一cm、直徑 一五cm、口徑九·五cm、壺口高 一·五cm

굽다리徑 八·五cm、蓋徑 一〇cm

〔追記〕 笠井周一郎 著『李朝染付』에 보면 高가 二七·五cm나 되는 白磁壺에 靑華로 墓誌를 記錄한 항아리의 寫眞이 있는데 이 墓誌壺는 처음부터 墓誌壺로 使用하기 위하여 깊이가 몹시 움푹하고 큼직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며 뚜껑을 덮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日常 家庭에서 쓰는 항아리와는 全然 다른 形狀의 것이었다。

마치 도가니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形狀이었다。

그러므로 다 같은 壺型墓誌에는 틀림이 없으나 筆者가 지금 紹介하는 우리가 늘 家庭에서 볼 수 있는 아담한 뚜껑까지 있는 항아리를 墓誌로 利用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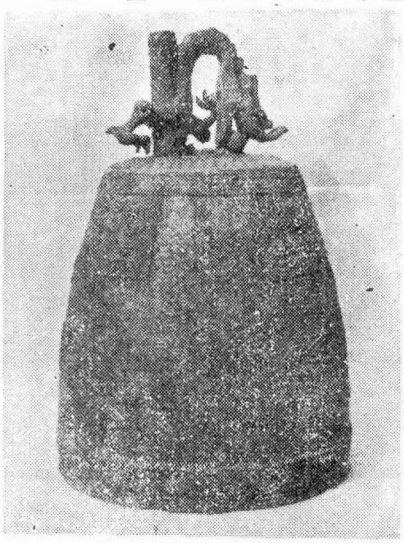
高麗靑銅梵鍾의 新例(其二)

黃 壽 永

(6) 全北 扶安出土 銅鐘(無銘)

一九五九年夏 出土되었다고 傳하나 詳細不明인데 保存은 完全하고 形態의 단정함과 彫飾의 優麗함이 當代의 代表作이다。中鐘으로서 鐘腹이 부르나 下面에서 다시 緊縮되었으며 傳統樣式을 具備하였는데 龍鈕 甬筒에도 細紋이 있고 上緣肩上에는 單瓣蓮花紋을 새겼고 四乳를 配置하였으며 그 間地에는 圓形蓮花撞座一、菩薩座像一 (天蓋 瓔珞이 있다) 飛天像二(一은 飛翔一은 跪座形)가 配置되었다。鐘體에서 鍍金의 殘痕이 보임은 注目되었다。

全高 三六cm、鐘體高 二六cm、上徑 一五·五cm、下徑 二四cm、厚 一·七cm



全北 扶安 出土 銅鐘

(7) 己未銘小鐘

一九五八年頃 安東 西後面 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할 뿐이다。各部樣式을 具存하여 龍鈕 甬筒이 있고 上緣에는 立狀蓮花紋帶가 周回하였으며 上帶에는 雷紋、下帶에는 唐草文을 刻하였다。四乳廓 各 九乳는 通式이며 그 間地 鐘腹에는 撞座와 飛天 各二가 交代하였는데 前者는 圓形蓮花紋(中央에 梵字ㅎ) 後者는 合掌하였다。銘文은 下帶上部에 向右一行으로 陰刻되었는데 「己未正月二十八日……大山……萬人……捧納小鐘壹座」라고 判讀되었다。彫飾은 纖弱하고 全面에 靑鏽가 덮고 있는데 同時作인 靑銅在銘金鼓一口와 같이 出土되었다。

總高 二二cm、鐘體高 一七cm、口徑 一五cm、

(8) 長興寺鐘(在銘)

京畿道 廣州 奉恩寺藏 中鐘으로서 龍鈕 甬筒을 缺失하였으나 身部는 完存한다。通式으로서 上·下의 蓮花紋帶 以外에 四乳廓四撞座 四菩薩立像이 配置되었다。鐘體下部에 十一行의 銘文이 陰刻되고 있어 「洪武貳拾伍年九月拾七日川寧土」 象頭山長興寺鐘造成金三百」斤以入鐘」이라 있